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다니엘9:24-26, 골로새서1:24-2:3

최정웅 목사님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참사랑 가족들이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 믿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단계로 성숙해 가시기를 축복한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구약의 주제는 메시아이다. 신약의 주제는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은 몇 번 나오지 않는다. ‘주제인데 왜 회미할까.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했다. 구약을 찾아보면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나온다. 메시아에 대한 서막이다.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3장 18장에 보면 희생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희생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더 크게 이야기 하자면,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떠나서 망한 인생은 하나님과 만나야지 사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나도 잘 못 쓰는 것을 여러분이 쓰게 하는 것이 미안하지만, 우리가 자초지종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필환에 쓰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오늘 다니엘서 9장 25절에는 영어로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마쉬아흐’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나온다. 히브리말로 기름은 ‘마샤흐’라고 발음한다. ‘기름을 칠하다, 붓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관유가 나오는데, 지금 시대로는 향수인 것이다. 그 뜻은 ‘메시아’이다. 관유를 만드는 법도 출애굽기 30장에 나온다. 이 관유를 몸을 치장하기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나와 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것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관유는 ‘마쉬하’ 혹은 ‘모쉬하’라고 말한다. 이것도 메시아라는 뜻이다. 히브리어에서 제일 많이 나온 메시아라는 말이 바로 ‘마쉬아흐’이다. 그러나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말은 ‘마쉬아흐’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신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마샤흐는 헬라어로 ‘크리오(χρίω)’라고 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크리스토스(Χριστός)’로 쓴다. 왜 이렇게 나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는 히브리어를 설명하는가. 히브리어를 잘 아는 분들은 공부를 더 해서 원어로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다. 구약에서 기름부음을 받는다고 할 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

1. 출애굽기 29장 7절, 29장 29절, 30장 30절이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머리에 관유를 부어서 제사장을 삼으라는 내용이 나온다. 기름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제사장에게 관유를 만들어 붓는데, 관유를 만드는 방법은 출애굽기 30장 후반에 자세히 나와 있다.

2. 사무엘상 9장 16절에 처음으로 왕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다. 기름을 부을 때 다윗에게만 성령이 충만해진 것이 아니고 사울에게도 기름부음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해졌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고 한다. 9장 28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사무엘상 10장 9절-10절에도 ‘마샤흐’ 기름을 부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여러 가지 재료를 합쳐서 만든 향수를 잘 다듬은 뿔에다 향수 몇 방울을 떨어트려서 제사장을 세울 때 붓는다. 또한 왕을 세울 때 향수를 붓는데, 그 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나온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왕위에서 폐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의 머리에 사무엘이 향수를 부을 때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고 나온다. 열왕기상 19장 15절-16절이다. 그 때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 아람왕이 되게 하라.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왕이 될 자에게 향수를 붓는 장면이 나온다.

열왕기상 19장 16절이다. 똑같이 ‘마샤흐’ 단어를 쓴다. ‘엘리아야. 너는 아벨므홀라에 가서 엘리아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출애굽기 30장 22절-25절, 34절-38절까지 읽어보면, 향유를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있다. 지금의 향수를 만드는 방법과 비슷하다. 그 향수를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울 때 붓는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모세오경에는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제사장을 말한다. 창조계획, 창조가 파괴된 이야기, 가정이 멸망한 이야기가 나온다. 나중에는 바벨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에는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망했는데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려서, 기름을 붓는 자가 나타나서 네 죄를 용서해줄 것이다.’ 메시아의 예언이 이어진다.

2. 우리는 역사서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전기예언서라고 말한다.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에스터까지 역사서까지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전기예언서라고 말한다. 이 역사서에는 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왕이 어떻게 다스리고 왕국이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해서 나온다. 사무엘서부터 시작해서 역대하서, 에스터까지 나온다.

3.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지서이다. 대선지서 4권, 소선지서 12권을 합해서 총 16권인데, 결국에는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교회가 선지자에 대해

서 곡해하고 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이 나오기 전에 질문을 받는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처음에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대답한다. 이 대답과 똑같이, 지금 교회들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고발하고 공의를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말한다. 주의 종이라고 할 때도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로 보는데 선지자는 세상을 비판하고 고발하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류광수 목사님께 처음 들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자이다.’ 새로운 해석이다. 그러나 그 말이 맞는 말이다. ‘이제까지 갔던 너의 길을 중지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라.’는 말이다. 그것이 새 틀이다. 옛 틀은 창세기의 12가지 문제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을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 새 틀이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다. 선지자는 공의도 선포하고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사회를 고발하기도 하지만, 엘리야처럼 기적도 행하지만 주목적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다시 산다고 전달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로 잊어버렸는가. 아무 것이나 보고 하나님이라고 한다. 자기보다 힘이 세보이면 하나님이라고 한다. 돼지 머리를 삶아서 앞에 두고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한다. 만물의 영장이 미물, 곤충보다 못하게 전락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알베르 카뮈라는 작가가 ‘전락’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고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세상이라면 살 이유가 없다.’ 하며 자살했다. 이렇게 구약에 보면 세 가지 율법서 모세오경에서는 제사장, 역사서에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 선지서에서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부터 왜 구약과 신약에서는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1.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겠다.

(1)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에서 영장이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돌보고 책임질 막중한 사명을 가진 인간이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까지이다. 그 후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이다. 에덴의 동쪽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되고 있다. 타락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말하는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지 않으면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네피림이 오지 않는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다.

(2) 하나님 떠난 사람이 완전히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특별히 6장 23절에는 그 때부터 사망이 오게 된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처참하게 죽어간다.

(3) 이 정도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인간을 속인 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다. 전도 할 때 ‘당신은 마귀 자녀입니다’ 말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귀자녀겠네요.” 말한다. “죄송하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답했다. 마귀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온갖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됨과 동시에 인정될 때, 그 고백이 되고 누릴 때 승급이 되는 것이다. 참사랑가족들은 성숙해가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란다. ‘난 다 알아.’ 틀렸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다 알 수 없고 끝없이 탐구해야 한다. 그래서 끝없이 날마다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기도하고 순종해야만 체현된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를 세워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4) 심지어 자범죄인 허물과 죄로 완전히 사망하게 되었다. 여기서 건져내어 지려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절대 절망하는 자에게는 절대 희망이 있다.’ 정말로 절망을 체현한 사람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 앞까지 차 얻어 타고 왔다 갔다 사람은 희망이 참 어렵다. 두들겨 맞은 사람은 빨리 돌아온다. 그런데 교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땀땀받고 발로 걸어참을 당한 사람은 강한 나무가 부러지듯이 빨리 회개할 수 있다.

(5)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지만 여러분도 모르게 조상들에서부터 있었던 것들이 나온다. 무속, 점술이 세상문화에 스며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은 완전히 망해버렸다. 그래서 기름부음 받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우리를 희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이다. ‘크리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약속하신 것이다.

2.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인간은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어서 저주와 계양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마침내 지옥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귀납법적이다. 나로 출발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종교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방법이 다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불렀

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이것을 연역법적이라고 한다. 우리가 찾아갈 수 없다. 사람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답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돌아가신 정두언 의원은 장로님이셨다. 장로님이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은 것이다. 너무 비참한 일이다.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도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한 것이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지성, 비지성 아무 관계없다. 주님을 만난 후부터, 오늘 찬양한 대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그 때부터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때부터 변화를 받아 새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은 노래도 잘하고 뛰어난 행정가였다. 세상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명쾌하게 답을 줬는지 모른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스로 죽어버렸다. 겨우 나이 60세를 넘겼다. 여러분은 답을 가진 것에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한다. 답이 없으면 누구나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 이기지 못한다. 공황장애, 우울증, 세상 욕망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다. 성경에서 '알다'는 말은 구약에서는 '아다(יָדָע)' 신약에서는 '기노스코(γινώσκω)'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알다'라고 하는 것이다. 기노스코도 마찬가지다. 인격과 행동이 하나 된 것, 지와 덕이 하나 된 상태를 '알다'라고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가면서 알기만 알지 체험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여러분의 가슴에까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머리로는 아는 지식 말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야 한다.

(1) 하나님이 해결방법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또한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만이 타락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기도문에서 첫 페이지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분은 참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다.

(2) 예언하신대로 세 직능을 행동으로 완성해서 인류를 완전히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주고,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답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답인 것이다.

(3)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온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다. 히틀러한테 '하일 히틀러'라고 인사한다. 그 말은 '히틀러는 독일의 메시아이십니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결국에 독일은 완전히 망했다. 그 누구도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분 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내가 내가 찾고 있는 참 진리, 생명이요. 나를 만나면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다. With, '내가 너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란다. 요즘 시대는 교회 새벽 중 치는 것도 막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어떤 사람의 부인이 아픈데, '여보 저 종소리를 듣는 곳에 데려다주면 살 것 같아.'한다. 이 남편이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새벽에 아픈 부인을 업고서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나중에 권사님이 되고 남편은 장로님이 되었다. 얼마나 신실한 신자인지 모른다. 목회하면서 그렇게 보호자가 되어주고 동역자 되어주는 사람을 처음 봤다. 우리 아이들을 그 분들이 다 키웠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기를 바란다. 겉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하는 사람은 영원히 헛갈리게 되어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참 선지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셨다.

(4)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아야 한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빼앗고,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고, 자기 몸을 모든 인류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위인전을 많이 읽어보니까 누가 존경받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보다 많은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물과 피까지 남김없이 다 주셨기 때문에 모든 장군, 모든 왕, 모든 인류가 그 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루 세 끼만 먹으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이 온 것은 기업인들이 돈을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가 번성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분들이 미국처럼 몇 억원, 몇 조원씩 사회에 환원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유시장경제는 현재 사회가 제일 선호하는 제도이다. 원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능력껏 벌어서 많이 베풀라는 주의이다. 영국의 윈저 성에 가보셨는가. 그 성은 영국 왕실의 소유이다. 그런데 수익의 90%를 세금으로 낸다. 영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놓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어지러워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고 했다. 참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되지 않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드렸다고 나온다. 9장 28절에 단번에 해결했다고 나온다. 이미 주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신 줄을 믿기를 바란다. 이것을 감사해야 한다. '주님이 단번에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이십니다.' 계속 고백해보라.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모든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나온다.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했다고 나온다. 베드로전서 1장 18-19절, 2장 24절, 3장 18절에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사 의인으로써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로마서 5장 18절에도 나온다.

3. 악령은 사람이 이기지 못한다. 악령과 귀신은 지식으로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악령을 단번에, 한 번에 박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오면 그 다음부터는 악령, 조울증, 우울증에 시달릴 일이 없다. 그 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고백하면 어느 순간 힘이 생긴다. 이길 힘이 생긴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른 것 하지 말고 불려보라. 주문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해보라. 어느 날 문제들이 사라진다. 그것을 체험해야 아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나에게서 해당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것이다. 그 말이 왜 그런지 질문하면서 체험하게 되면 '맞구나.'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때부터 증인이 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악령은 떠나간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다. 마귀를 먼저 쫓아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 진도현장가면 먼저 원수부터 쫓아야 한다. 첫 날 지형을 살피면서 계속 흑암 쫓아라. 두 번째 날에는 가보면 흑암이 쫓인 것을 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다.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려고 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평신도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다. 당하지 말고 쫓아버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하여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되어있다. 선포하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원수를 멸하러 오신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매일 마귀 이야기만 한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온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지를 못하니까. 승리하기를 바란다. 마귀를 멸하러 오시고 그 권세에서 너를 놓아주려고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계시는 점진적이다. 처음에는 희미하다가 점점 확실해져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완성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한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참 왕을 보내셔서 원수를 제압하는 비밀을 알려주셨다. 모세오경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이다. 역사서, 전기예언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이다. 선지서는 그 말 그대로, 그 길을 가면 죽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길을 알려 주는 메시지이다. 선지자에 대한 왜곡이 지금 교회에는 만연하다. 왜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며, 비판하는 설교를 왜 하지 않냐고 말한다. 교회를 망치는 원수들이 있다. 교회마다 몇 사람이 그렇다. 그 사람들이 자기는 정의로운 사람인 척 하면서 교회를 계속 어렵게 만들고 문제 삼는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제는 부인하지 말고 고백하기를 바란다. 믿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냥 주문같이 부르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가는 것이다. 당신의 삶의 틀을 바꾸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입을 닫으라. 그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를 찾아오셨다니, 제가 믿음 이 부족해서 알아듣지 못하오니 알아듣게 말씀해주세요.' 그 때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다. 그 때부터 변화가 온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인간이 망했고, 망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믿고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다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모든 문제 해결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없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